

모든것이 새롭다.
All Things New
Week #2 “Belong” 속하다.

창세기 GENESIS 12:1-5

1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2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3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4그래서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5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The Lord ha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2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4 So Abr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and Lot went with him. Abram was seventy-five years old when he set out from Harran. 5 He took his wife Sarai, his nephew Lot, all the possessions they had accumulated and the people they had acquired in Harran, and they set out for the land of Canaan, and they arrived there.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형제의 증거, 사람의 입을 통해 찾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불확실하고 낙담이 자주 올때마다, 혼자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믿지 않고는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한 구원의 말씀의 전달자이자 선포자로서의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형제의 그리스도 말보다 약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불확실하고 그의 형제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함께하는 삶

“God has willed that we should seek and find His living Word in the witness of a brother, in the mouth of man. Therefore, the Christian needs another Christian who speaks God’s Word to him. He needs him again and again when he becomes uncertain and discouraged, for by himself he cannot help himself without belying the truth. He needs his brother man as a bearer and proclaimer of the divine word of salvation. He needs his brother solely because of Jesus Christ. The Christ in his own heart is weaker than the Christ in the word of his brother; his own heart is uncertain, his brother’s is sure.”

-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히브리서 HEBREWS 10:25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시다.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요한복음 JOHN 15:15-19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16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fruit that will last—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17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18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19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